

## 편견 범죄 피해자를 위한 미디어 상대 요령

증오 범죄 또는 편견 사건 이후 언론 매체에서 자신들의 보도에 피해자의 발언을 신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. 심지어 피해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상이나 본인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정보를 게시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. 직접 겪은 이야기의 힘으로 인식과 이해, 교육을 제고하고 제도 또는 사법적 변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프라이버시를 상실하고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노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
미디어를 상대하는 요령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.

- 여러분이 미디어에 하는 얘기는 공개적이고 영구적인 것입니다.
-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.
- 사전에 오리건 주의 [편견 대응 핫라인\(Bias Response Hotline\)](#) 소속 권익 옹호자와 공개적인 발언에 관한 안전 계획에 대해 상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.
- 미디어와의 집적 접촉을 원치 않는 경우 대신 상대해줄 수 있는 대변인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, 변호사, 종교 지도자 또는 피해자 권익 옹호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내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. 방송국에 전화해 소속 기관을 확인해도 괜찮은지 물어보십시오. 기자의 기자증을 보여달라고 합니다.
- 기자와 만나는 데 동의하기 전에 이 보도 기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기자에게 물어봅니다.
- 기자와 대화/발언하는 동안 증인 역할을 하고/하거나 메모를 해 줄, 믿을 수 있는 친구를 데려가십시오.
- 여러분도 대화를 녹음해도 되는지 물어보세요. 기자도 아마 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.
- 익명으로 보도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.

- 이름을 밝히기로 결정하는 경우, 기자에게 철자를 불러주고 어떤 대명사를 써야 할지 지정해 주십시오.
- 경계선을 정해 주십시오. 발언 중 특정 부분은 비공개를 전제(off the record)로 한다고 말해도 됩니다.
- 의도치 않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. 내 스스로 준비도 되기 전에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것은 아닌가? 또는, 내 아이, 내가 다니는 학교, 또는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 발언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?
- 내 발언 요지를 미리 적어 둡니다.
- 내 발언 내용이 오디오/동영상/글의 형태로 TV 기사, 신문 기사, 라디오 기사, 온라인 기사 등 다양한 형태로 기사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오.
- 블로거, 인플루언서, 팟캐스터, 또는 그 외에 언론 보도 교육이나 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다른 사람이 내 발언에서 일부만을 잘라내어 사용하거나 내 경험이나 발언을 다르게 왜곡해 전달할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. 심지어 내가 지지하지 않고/동의하지도 않는 다른 보도 기관에서 내 원래 발언 내용을 편집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
- 발언에서 조금이라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말을 할 경우 향후 형사 사건 또는 민사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.
- 모든 후속 문의 사항/인터뷰와 관련해 연락을 맡을 사람을 지정해 두십시오.
- 기억하세요: 범죄 행위의 피해자로서, 여러분에게는 인터뷰를 하거나 언론매체를 상대할 의무가 없습니다. 원할 경우 본인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.
- 기자들이 괴롭힌다고 느껴지는 경우, 소속 언론 기관이나 경찰에 항의할 수 있습니다.